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7년 1월 ~2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인도, 식품안전표준국, 유기농 식품, 규제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인도, 식품안전표준국, 유기농 식품, 규제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5. 1.
인도 작물관리연맹(CCFI),
식품안전표준국에 유기농
식품 관리 및 규제 요구

2017. 2.
인도, 식품안전표준국
(FSSAI) 유기농 식품 규정
초안 발표 예정

핵심이슈
도출

“인도, 식품안전표준국(FSSAI) 유기농 식품 규정 초안 발표 예정”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인도, 식품안전표준국(FSSAI) 유기농 식품 규정 초안 발표 예정

인도의 식품안전표준국(FSSAI)는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유기농 식품에 대한 규정의 초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FSSAI에 따르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유기농 식품 규제에 대한 초안을 준비하였으며 초안은 이번달에 발표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인증 방법의 변경을 제안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새로운 인증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위원회도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도 농가공식품수출청(APEDA)에서는 수출시 유기농 식품의 인증을 시행할 계획이다. 인도에서 유기농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APEDA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APEDA의 인증이 있으면 무리없이 유기농 식품의 해외 수출이 가능하다. APEDA 인증은 인도 내 판매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유기농 식품 규정이 시행되면 국내 판매업자도 유기농 제품임을 증명하기 위해 인증을 취득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인도의 유기농 식품 시장은 대략 3천 루피의 규모로 매년 30%대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기농 식품 관리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인도 FSSAI에서 유기농 식품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재정비하기 시작하면서 향후 유기농 식품 업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인도의 유기농 식품 시장은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시장성이 높은 편이다. 유기농 식품에 대한 규정예 대한 초안이 곧 발표될 예정임에 따라 인도 내 유기농 식품 업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달 발표될 유기농 식품 규정 초안에 의하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증 제도에 대한 변경이나 새로운 유기농 인증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아직까지 수입 유기농 식품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지만 향후 고시될 유기농 식품 규정에 주목하여 새로운 유기농 식품 인증의 도입이나 변경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